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환희로 설레이고있다.

승리, 이 두 글자에 얼마나 위대하고 가슴부풀게 하는 민족의 환희가 어려있는것인가.

승리는 사람들의 운명을 가른다. 특히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민족사적의미가 헤아릴수 없이 크다.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혹은 패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굽추치기도 하고 반대로 천길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세계제국주의우두머리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청소한 공화국과 조선민족의 운명을 건 력사상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다.

이 전쟁에서 세계의 eyes를 깨고 청소한 인민공화국이 미국을 라승하였다. 그것은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일대 기적이고 새로운 전승신화였다.

60여년전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짓부셔버린 7.27전승은 정의의 수호자인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범, 현명한 지략과 령군술의 승리이다.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산악같은 배짱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 천출명장의 령도를 받 는 공화국인민의 정의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 조국결사수호정신이 창조한 역사적기적이고 승리였다.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었다.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면서 침략자 미국은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만큼 조선전쟁은 적아가 군사기술적, 력량상에서 차이가 너무도 엄청난 대결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어리석었고 오산하였다. 하루면 일기에 북조선을 함락한다고 장담한 미국은 3년간이나 추풍락엽의 신세가 되어 호된 징벌을 면치 못하였고 끝끝내 조선인민앞에 회기를 들었다.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승리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

세기를 이어 빛나는 승리의 7.27

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화의 나날 무려 5만 2 000여리의 화신강행군을 이어가시며 비범한 군사적지략과 전법으로 미군의 작전계획들과 기도를 여지없이 격파분쇄하시였다. 주동적인 반공격전략제시, 현대포위전의 모범창조, 강력한 제2전선형성,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전술구사, 전시생산과 원호조직과 같은 탁월하고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세련된 령군술로 미국침략세력을 라승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으로

되었고 불의를 라승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총포탄이 작렬하는 격전장들과 전시생산으로 날과 날이 밝는 공장과 농촌을 비롯한 후방에서 군대와 인민이 소리높이 부른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 《봄노래》와 같은 전시가요의 메아리는 멸적의 총포성과 함께 그대로 승전포성파도 같았다.

당시 조선에 주재하고있던 이전 소련의 《쁘라우다》 특파원으로서 7.27전승의 역사적장면인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고 비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촬영하였고 후날 또다시 미국

이 도발한 《푸에블로》 호사건을 목격한 올라지미르 톨스찌코브는 김일성동지는 전생애에 걸쳐 모든 대결에서 승리한 력사에 유일한 승리자이시고 영원불멸할 정의의 화신이사라고 격찬하였다.

7.27전승의 사변과 기적은 련전련승의 력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추억은 더욱 아름답고 자랑스럽다.

침략의 6.25뒤에는 패배만이 차레진다는 쓰디쓴 교훈을 잊고 정전은 휴식이다, 싸움은 이제부터다며 침략의 야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은 미국의 새 전

쟁도발책동에 의하여 정전후에도 이 땅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1960년대의 미국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 1970년대 판문점사건을 둘러싼 조미대결전, 1990년대초의 제1차 조미핵대결전, 그후 제2차 조미핵대결전 등은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준엄하고 첨예한 조미대결이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기며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수호의지와 애국헌신의 선군주정에 의하여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결음마다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없었더라면 이 땅에서는 열백번도 전쟁이 터졌을것이며 우리 겨레는 두번다시 전쟁의 참화와 재난을 당하였을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에 대하여 인디아의 사회계인사인 비슈와 나스는 김정일령도자는 조선을 무한대의 군력을 가진 나라로 만드

시어 제3차 세계대전이나 세계열핵전쟁을 막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시었다고 하였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말로

결심이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자위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외세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책동을 결음마다 짓부시는 무진막강한 군력을 가진 조선의 현실과 위력에 대하여 인디아신문 《피플즈 데모크라시》는 미국은 1953년 조선전쟁에서 패하였으며 지금도 이길수 없다, 그들이 조선을 침공한다면 또다시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전하였고 미국의 소리방송은 이제 미국의 심장부에 수천수만의 목숨을 물어버릴 유일한 적수가 있다면 북조선일것이라고 하였다. 로씨야신문 《쁘띠리온트》는 자기만이 강자라고 하는 과신패문에 미국이 어느때인가는 50년대초 조선전쟁때와는 비교할수도 없는 과국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고 평하였다.

세계의 옳은 평가이고 공감이다.

침략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때에는 정전협정이란 있을수 없으며 침략자들은 쓰디쓴 자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천출명장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핵억제력을 비롯한 강력한 군력이 있으며 령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힘이 있어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는 머지않아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강원도 매봉산줄기의 지맥에 놓여있으면서 해발높이가 1 192m인 지혜산에서는 1211고지가 한눈에 보인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인 1951년 9월 어느날 지혜산에 오르시어 전승의 전환적극면을 열어놓을 웅대한 구상을 펼쳐치시였다.

1951년 여름 《하기공세》에서 대첩을 당한 미국은 수많은 병력을 들이밀고 새로운 《추기공세》를 기도하고있었다.

미국은 《추기공세》를 준비하면서 전선서부에 적지 않은 병력을 들이밀고 그곳이 마치 주라격방향인듯이 부분적공격을 시작하였고 그럴듯 한 정보까지 흘리였다. 만약 그러한 정세판단에 따라 군사작전을 진행한다면 1211고지를 잃게 되는것은 물론 그뒤에 의거하여 싸움만 한 고지가 없어 원산까지 적에게 내어줄수 있었다. 참으로 전쟁

지혜산에서 드리신 정의

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바로 그러한 때 최전선의 고지에 오르시어 적정을 료해하시고 미군의 기도를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럭바위우에 놓은 작전지도우에 적들의 《추기공세》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승리의 화살표를 그어주시였다.

이 처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뛰어난 지략으로 오랜 침략전쟁과정에 료회하고 융통한 술책으로 악명을 떨친 미국의 살인장군들이 두뇌를 합쳐 고안해낸 《추기공세》를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시였다. 진정 1211고지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군사전법의 빛나는 승리였다.

그때로부터 이름도 없이 직동령 서쪽산이라고만 부르던

산 1211고지를 지켜낼수 없었을것이며 전쟁국면도 매우 어렵게 되었을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이런것을 생각할때마다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군사적예지와 선견지명에 머리가 숙여지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지혜산혁명사적지 현지지도표식비앞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갈리신 읍성으로 우리는 오늘 4월 15일을 최전연에서 맞다보니 금수산기념궁전에 가서 수령님께 경의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혜산에 세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앞에서 수령님께 경의를 드립시다라고 하시며 정중한 자세로 앞에 나서시어 최전연산발이 찌뿔뿔렁 울리게 구령을 치시였다.

《자릿! 경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혜산

《총공격》대 총반격

미군이 공화국북반부 전 지역을 단숨에 함락하겠다는 호언하며 《크리스마스총공격》을 준비하고있던 때였다.

어느 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 군사일군을 만나시고 미군의 《총공격》을 총반격전으로 제압하기 위한 작전안을 말씀하시면서 하여 전선서부의 청천강, 대동강상류 그리고 전선동부의 장진호반과 그에 잇닿아있는 개마고원의 계곡마다에서 인민군대의 총반격전, 대소탕전이 개시되였다. 인민군대의 드센 반격에 의해

미군의 《크리스마스총공격》은 《총퇴각전》으로 역전되어 불과 며칠만에 남쪽으로 패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유럽의 한 기자는 종군기에 이렇게 썼다.

《미군은 이날 총공격을 개시하자마자 다음날로 인민군대의 총반격에 부딪혔었다. 미군의 총공격날자를 알아맞힌것도 상상밖의 일이지만 빈틈없이 잘 타산된 반공격시간의 선택도 참으로 놀라운것이다. 그것은 인민군 최고수뇌의 작전능력에 한계가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대전포위전

되였다.

당시 조성된 전선상황을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합부대들의 배비변경과 작전일무를 새롭게 정한 전술방안을 제시하시어 대전포위환의 공백을 순식간에 메꾸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7월 20일 7시간동안의 대전포위전은 승리적으로 결속되게 되였다. 미제24사단장 편이 생포

되였고 수많은 유성력량과 전투기술기체들이 살상, 파괴되거나 파괴, 로획되였다.

대전포위전은 조성된 정황에 따라 름기응변의 지략으로 전투력량의 기동을 령활히 조직하여 물샐틈없는 포위망을 형성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이 낳은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었다.

상공격작전안을 가르쳐주시였다.

며칠후 어뢰정대해병들은 주문진앞바다에서 해상공격전을 단행하여 1만 7 000급 중순양함《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1만 4 000급 경순양함을 격상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세계전쟁사에 전례없는 해전상보로 죽가마뚤듯 한 주문진해전에서서의 인민군대의 승리는 적함대를 대대한 공적정신으로 피멸시키도록 하신 수령님의 령활한 작전과 슬기로운 지략의 승리였다.

본사기자

전선에서 전선으로 끊임없는 시찰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장정에 의하여 7.27전승신화와 기적은 련전련승의 력사로 길이 빛나고있다.

총포성이 울부짖는 전쟁의 나날 화신강행군을 하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모습으로부터 사회주의수호전의 준엄한 나날 선군천만리를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기상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남전선의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로부터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의 최전방초소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 총회무진전시며 어제도 오늘날도 조국수호의 전선길을 걸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지난 7월 중순 동부전선을 시찰하시였다. 최전연을 지키는 인민군장병들의 초소들을 돌아보시며 경계군무정형과 적정을 료해하시고 전세의 요구에 맞게

전연경계군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함대 대하여 지시하신 그이께서는 351고지를 찾으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파ieren 격전터인 그 고지에는 전쟁의 제4계단 마지막 시기에 서울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351고지는 내어줄수 없다고 버리는 적을 단숨에

주시고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우뢰와 같은 폭음이 최전연산발들을 뒤흔들고 고지는 전장을 방불케 하는 자욱한 포연에 휩싸였다.

해상에 세찬 물기들을 일으키는 강력한 화력타격을 보신 원수님께서는 포병들이 정말 포를 잘 쏜다고 하시며

아리였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적들이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선부대들의 싸움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351고지는 결코 지나간 세월의 옛 전장이 아니다.

산, 대덕산, 121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선의 모든 진지와 초소들이 위대한 령장의 전략전술적화살표를 따라 최후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는 불침의 전함, 불퇴의 고지이다.

적아대결이 첨예한 땅에서 최전방을 주름잡으며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 평화를 수호하시는 위대한 명장을 모신것은 민족의 더없는 행운이며 백전백승의 힘의 원천이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강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지략과 령군술로 나라의 군력을 비상히 강화하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민족의 존엄과 안전, 조선반도의 평화가 담보되며 7.27전승은 오늘날도 빛나고있는것이다.

김 연 희

옛 전장에 올린 포성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옛 전장에서 올린 포성은 그대로 반공화국대세력의 도전과 침략책동이 그치지 않는 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감히 적대세력이 끝없는 조선반도에서 침략의 불길을 퍼뜨린다면 침복서에 도장을 찍을 높조차 없게 모조리 섬멸해버릴 인민군장병들의 멸적의 의지와 기상을 보여준 승전의 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밑에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할 최후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정의의 수호자들이 멸적의 불길을 퍼뜨린다는 결심과 함께

조국수호, 민족수호를 위한 반제반미대결의 격전장은 351고지만이 아니다. 최고사령부의 작전지도우에 놓여있는 장제도와 무도, 화도와 려도, 오성산과 지혜